

중미온두라스의 임업

이 천 용 / 임업연구원 입지환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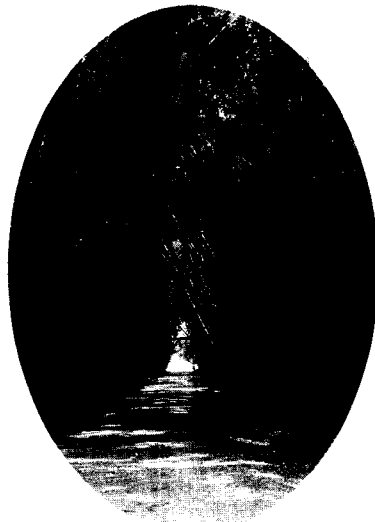
1. 일반사항

온두라스 공화국의 수도는 테구시갈빠이며 면적은 112,088 km²로서 한반도의 절반이고, 인구는 약 500만명으로 인종은 메스티조 91%, 인디안 6%, 흑인 2%, 백인 1%이다. 언어는 스페인어이고 종교는 90%가 카톨릭교이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로 임기는 4년단임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546달러(1988)이다. 기후를 보면 해안은 열대성으로 연평균기온은 27℃이고 강우량은 1,500mm~3,000mm이며, 내륙고지대는 온대로서 연평균기온이 21℃, 강우량은 800mm~1,000mm이며 雨期는 5~7월, 乾期는 11~4월이다.

2. 역사

콜롬부스 도착 수세기전까지는 마야문명의 중심지였으며 콜롬부스에 의해 발견되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고 1824년 중



식물원내 대나무 터널

미 연방국의 일원이 되었으며 1838년 중미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독립하였으나 독립이후 빈번한 혁명으로 정정의 불안상태는 계속되었다. 그후 대통령의 독재정치와 군사정권이 계속되다가 1979년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정국이 안정되고 있다. 한편 온두라스 거주 엘살바도르인의 대우문제등으로 축구경

기가 도화선이 되어 불만이 쌓인 가운데 엘살바도르와의 국경분쟁이 일어난 것은 유명하다.

3. 임업현황

山林資源

산림은 망그로브숲을 포함하여 전국토의 75%를 차지하나 임목이 있는 곳은 68.3%이고 나머지는 벌채된 곳이다. 임상별로 볼 때 활엽수림은 270만 ha, 침엽수림(대부분이 소나무류)은 440만 ha이며 나머지는 황폐지이다.

20년전부터 매년 4만ha의 침엽수림이 벌채되고 25000ha가 천연갱신이 되고 있으나 15000ha는 방목지로 이용되고 있다. 아직 벌채지의 63%가 천연갱신된다고 하지만 현재의 임목축적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감소로 목재수출량이 85년 9,000만 보드피트에서 88년 7,400만 보드피트로 감소하였다.

현재임업의 문제점은 산림을 벌채만 하고 조림을 하지않아 황폐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이 빈약하여 산림투자 예산도 적다. 산림황폐 원인은 임산연료 소비과다, 화전(火田)의 증가, 산불피해, 소나무류에 대한 병해충 피해 등으로서 산림의 감소는 아주 심각하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계속 산림 파괴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60년내에 완전히 황폐될 것이다.

중요한 소나무는 Pinus

caribaea var. hondurensis인데 수고생장은 20~30m, 직경은 50~80cm까지 자라며 수간이 곧다. 목재는 비교적 무겁고 수지를 채취하며, 건축재등으로 많이 사용한다.

성장한계는 해발 700m까지이며 사토 등 비교적 불리한 입지에 분포하나 배수가 좋고 비옥한 곳에 잘 자라며 연평균 강수량이 2,000~3,000mm인 곳에 나타난다. 산불이 난 곳에 종자가 발아하여 자연적으로 갱신이 된다.

P.ocarpa와 구분하기 어려우나 전체소나무류의 27%를 차지한다. 또한 P.ocarpa는 이 나라의 나라나무(國木)이며 수고는 15~30m, 직경은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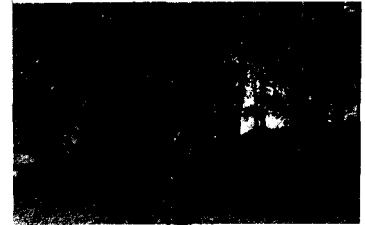
카리브해안 망그로브 숲



마야유적지와 주변의 숲



20년생 오크나무



20년생 티크 조림지

70cm까지 자란다. 연평균 강수량 2,000~3,000mm과 해발 600~1,600m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適地는 따뜻한 온대와 아열대 지방의 배수가 좋고 해발 1,000m부근지역이다. 수피가 두꺼워 산불에도 잘 견디며, 자연낙지가 잘 된다. 잡초가 많으면 천연갱신이 어렵다.

山林法

임업경영은 1971년 제정된 산림법과 1974년의 산림발전법, 1984년의 일반 산림법에 의하여 명시되고 있다.

산림법은 산림이 다른 천연자원과 조화있게 관리되어야 하고 방제에 대하여 명시한다. 한편 산림청(COHDEFOR)은 국가의 산림행정을 주관하며 모든

임업활동에서 간섭을 한다.

1992년 3월 이전에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임목은 국가 재산이었으며 그후에 산림법을 개정하여 지상물의 사유화를 인정하였다.

산림법은 산림의 환경보전 기능을 추구하며 목재 생산과 함께 사회 경제적 역할을 강조한다.

木材生産

목재산업은 중소 제재소에서 생산된 제재목이 주류이고 그외 울타리용 지주, 전봇대용으로도 생산하는데 그 양은 1974~1986년까지 침활엽수재 모두 834,500m³이었다. 1975년의 수지 생산량은 38,300배럴이고 적게는 24,000(1985)에서 많게

表 1. 임산물 輸出(백만불)

계	종자	수지	제재목	가구	빗자루	토마토지주	합판	기타
46.1	0.2	3.2	24.8	5.6	5.5	1.9	1.5	3.4

는 64,300배럴(1981)을 생산한다. 이것은 1770가구의 화전민이 91,000ha에서 생산한량이다.

수지생산량은 국제시장 가격의 하락과 재래적인 수확방법으로 매년 감소한다. 발삼도 매년 245배럴을 생산하며 가격이 좋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종자는 주로 임업전문대학 내에 있는 종자은행의 협력하에 카리브소나무와 오카르파소나무 종자를 채취하여 매년 1865kg을 생산한다. 빨감과 숲 생산량은 560만㎡으로 추정된다.

임업은 GNP의 5%를 차지하

며 총수출물량의 11%를 차지하여 3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목재 및 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출하려면 벌채를 증가해야 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의 기술지원

선진 임업국과 세계기구에서는 표2와 같이 임업분야에 많은 재정적, 기술적 원조를 하고 있다.

맺는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기술원조를 실시하여 온두라스 임업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외교적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목재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민간기업이 진출하여 조림을 하고 나중에 벌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평균 임목성장량은 헥타아르당 약15~20m³으로, 생장이 좋고 인건비(월 50불)와 수송비가 싸므로 조림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심하므로 먼저 정부의 기술지원을 통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44

表 2. 援助 프로젝트名과 金額

프로젝트명	支援機構(國家)	援助額(천달러)
라모스키티아 지역조림	유럽공동체	기술원조
임업발전	세계식량계획	1952
임산에너지	영국	239
임업지원	캐나다	3,061
임업발전연구	미국	949
활엽수림개발	캐나다	1,533
꼬뻘강유역개발	일본	기술원조
프라자지역복합경영	일본	70
다목적임업경영	일본	124
사회임업강화	유엔개발기금	326
임업발전을위한 제도적지원	유엔개발기금	314
임업훈련 및 목재산업	독일	424